

인평대군의 가곡 향유와 <몽천요>에 대한 반응

최재남*

<차 례>

1. 서언
2. 인평대군의 가곡 향유 양상
 - 1) 금원 또는 낙봉 주변의 화연
 - 2) 연행의 신고와 위로연의 회포
 - 3) 세태인정의 변화에 대한 경계
3. 조계별업의 풍류와 흥취
4.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한 반응
5. 소결

<국문초록>

인평대군 이요는 계해반정[1623]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의 셋째 아들이며, 봉림대군으로 알려진 효종의 동생이다. 어릴 때에 봉림대군과 함께 윤선도(尹善道)를 사부(師傅)로 모시고 배움을 익혔으나, 격변의 와중에 여러 차례 불모의 성격으로 청나라를 다녀와야 했고, 부군 인조와 사형 효종의 후원으로 금원(禁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권부의 영위를 실감하였으며, 조계동(漕溪洞)에 별서를 마련한 뒤에는 구천은폭(九天銀瀑) 등의 새로운 문화공간에서 풍류를 누리는 여유를 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전하는 몇 편의 가곡 향유는 당대에 권력을 누리던 왕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그 주변 인물들과 함께 가곡 향유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천은폭 주변에 조계별업을 마련하여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한 삼각산 유산에서 중요한 지소로 지목되어서 이른바 조선후기 유기와 사설시조 연행의 성격

* 이화여대

을 해명하는 데에 하나의 잣대가 되고, 윤선도와 <몽천요>와 <번몽천요>를 소통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인 입장까지 살필 수 있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심어 : 인평대군, 가곡, 낙봉, 연행, 조계별업, 구천은폭, <몽천요>, 윤선도

1. 서언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潛, 1622~1658)는 선조 임금의 증손자이고, 원종 대왕(元宗大王)으로 추증된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瑋)의 손자로, 인조 임금의 셋째 아들이다. 봉림대군으로 알려진 효종 임금의 동생이다. 자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이며, 여덟 살에 『효경』과 『소학』 등을 사부(師傅) 윤선도(尹善道)에게 학업을 닦았고¹⁾, 인조 18년(1640) 불모로 심양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온 뒤에, 인조 20년(1642) 5월 진하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²⁾ 사은사 등으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오단(吳端, 1592~1640)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서, 옥(楸), 정(楨), 남(栴) 등의 6남 4녀를 두었다.

인평대군은 병자호란 이후 효종이 된 봉림대군과 불모로 간 체험이 있고, 여러 차례 연행을 통하여 다양한 회포를 드러내었다. 그 중에서 『송계집(松溪集)』에 실린 많은 시편과 연행 기록인 「연도기행(燕途紀行)」은 연

1) 李景奭이 찬한「신도비명」에는 外傳라고만 하였고, 『인조실록』인조10년 기사에는 윤선도가 오래 사부를 맡아서 호조정랑에 특채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孤山年譜」에는 인조 무진년(1628) 3월에 兩大君의 사부를 맡았다고 하였다.

2) 인조 20년(1642) 5월 진하사(卞三近, 洪處亮), 인조 21년(1643) 9월 진향사(韓仁及, 沈東龜), 23년(1645) 3월 사은 겸 진하사(鄭世規, 成以性), 25년(1647) 4월 사은사(朴遂, 金振), 효종 1년(1650) 6월 사은사(林壇, 李弘淵), 11월 동지사(李基祚, 鄭知和), 효종 2년(1651) 11월 사은사(黃辰, 權堦), 3년(1652) 사은사, 4년(1653) 1월 문안사(俞徹, 李光載), 5년(1654) 8월 문안사(沈世鼎), 11월 사은사(李一相, 沈世鼎), 7년(1656) 8월 사은사(金南重, 鄭麟卿), 8년(1657) 5월 초황사 등이다.

행의 노정과 감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계해반정 이후 궁금(宮禁)과 금원(禁苑)에서 지낸 기억³⁾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군 인조와 사형 효종의 아픔을 받아 권부의 힘을 누렸으며, 때로는 간신(諫臣)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연행의 과정에서 물화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거나, 우살(牛殺)의 권리를 확보하는 등⁴⁾ 왕자로서 거리낌 없이 처신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인조는 인평대군에게 낙봉(駱峰) 아래에 집을 짓게 하여, 사의당(四宜堂)·영파정(映波亭) 등의 당(堂)과 정(亭)이 갖추어진 원림(園林)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고, 인평대군은 인조 24년(1646)에 동소문 바깥 조계동(漕溪洞)에 별업을 마련하여 풍류와 흥취를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동대문 밖이 대부분 인평대군에게 소속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⁵⁾

인조 26년(1648)에는 천마산 유람을 하였고, 연행의 신고를 위로하는 입장에서 효종 3년(1652)에 금강산 유람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 무렵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부 윤선도에 대한 마음과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있어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일면도 확인할

3) 창덕궁 후원에 인조가 쓴 ‘玉流川’의 각자가 있다.

4) 『인조실록』 권48, 25년(1647) 2월 2일(계유)

5) 『인조실록』 권50, 27년(1649) 2월 13일(임인)

대사헌 金南重이 아뢰기를, “여러 궁가 시장(柴場)의 폐단에 대해 대신도 지적하여 말하지 않고 범연히 궁가라 말하였는데, 동대문 밖은 다 인평 대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흥군(仁興君)과 경평군(慶平君)은 전하께서 난처하신 바가 있겠으나, 능원대군(綾原大君)과 인평 대군도 금단하실 수 없겠습니까. 또 인평 대군 집에 머무르는 한인(漢人)은 무슨 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에서 한림을 때렸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신이 법부(法府)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으나 대군이 숨기고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데가?” 하였다. 김남중이 아뢰기를, “한림 이후(李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자, 이 후가 대답하기를, “신이 공무로 길에 나갔다가 술에 취한 한인을 만났는데, 그가 갑자기 끌어내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곧 돌려보낼 것이다. 형추할 수 없으니, 형조에서 결장하라.” 하였다.

수 있다.

그런데 인평대군이 죽은 뒤에도 후손들은 효종과 현종의 보살핌을 받아 권력과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사람들과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말았다. 숙종 6년(1680) 경신년에 복선군 남(柟) 등이 역모를 꾀했다고 하여 화를 입으면서, 북창군 정(楨)의 양자로 있던 의원군 혁(爌)을 과양하여 본가로 보내면서, 절손의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영조 7년(1731) 의원군의 아들 안흥군 숙(淑)을 인평대군의 봉사손으로 삼고, 영조 49년(1773)에는 안흥군의 아들 진익(鎭翼)에게 인평대군의 연행록 등을 가져오게 하여 운각(芸閣)에서 인행하고 이진익에게 공조참판의 벼슬을 내렸으며, 순조 18년(1815)에는 이진익의 손자이며 병원(秉源)의 둘째 아들인 채중(案重)을 구(球)로 개명하여 남연군(南延君)으로 삼아 영조의 손자 은신군(恩信君) 진(禛)의 입후를 삼았다.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 흥선군 하응(晙應)이고, 흥선군의 아들이 재황(載晃)인데 뒤에 익성군(翼聖君)에 봉해지고 익종(翼宗)의 후사가 되어 고종에 올랐다.

절손이 되었던 가계가 대를 잇고, 인평대군의 문집인 『송계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정을 다음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의 본생 6대조 인평 대군 이요(李潛)의 유고를 영묘(英廟)의 특교를 인해서 운각(芸閣)으로 하여금 간행하여 올리게 했으며, 아울러 열성조의 어제 뇌문(誄文)도 함께 신도록 하고 인하여 한 본을 운각에 보관하고 한 본은 어의동(於義洞) 본궁(本宮)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니, 『송계집』이 그것입니다. 선대왕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또 아울러 전후의 어제·어필을 각해서 묘정(墓庭)에 비를 세우라고 특명하셨습니다. …(중략)… 삼가 원하건대 특별히 운각에 명을 내려 본궁에 소장된 그 본(本)을 일체로 첨가해 간행한 후, 전대로 다시 보관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에 문집을 간행하여 올리자, 대군의 사우(祠宇)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고, 사손(嗣孫)을 녹용하라고 명하였다.⁶⁾

인평대군의 삶과 행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가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후대의 가집에 인평대군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몇 편의 가곡이 있어서 이를 인평대군의 행적과 연결시켜 살필 수 있고, 조계동에 마련한 별업에서 구천은폭(九天銀瀑) 등의 지소가 조선후기 유기(遊記)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사설시조의 연행과 그 성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부였던 윤선도의 <몽천요>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신을 통하여 일정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청구영언(진본)』에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수록된 몇 편의 작품이 후대의 가집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기명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사정과 이 작품들을 인평대군의 행적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조계별업의 별서 공간을 통하여 인평대군을 중심으로 한 이들 집단의 풍류와 흥취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곳의 핵심 지소인 구천은폭이 후대 유기와 사설시조의 연행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인평대군의 사부인 윤선도의 정치적 이력을 염두에 두면서 윤선도가 <몽천요>를 지어 인평대군에게 보내고 여기에 인평대군은 서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와 입장에 대한 시조 담론의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2. 인평대군의 가곡 향유 양상

인평대군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곡은 다섯 편이 있다. 수록된 가집

6) 『순조실록』 권27, 25년(1825) 6월 11일(정묘)

을 중심으로 겹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해동가요』에 1수, 『병와가곡집』에 2수, 『청구영언(육당본)』에 4수가 작가가 인평대군으로 밝혀져 있다. 『해동가요』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된 1수는 『청구영언(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병와가곡집』과 『청구영언(육당본)』에 각각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병와가곡집』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실린 2수 중 1수는 『청구영언(진본)』과 『청구영언(육당본)』에 각각 작가 미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수는 『청구영언(진본)』과 『해동가요』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청구영언(육당본)』에는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실려 있으며, 『청구영언(육당본)』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된 4수는 『청구영언(진본)』에 3수가 작가 미상(무씨명)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수는 실려 있지 않다.⁷⁾

가집의 편찬 시기에 따라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전하다가 후대에 작가가 인평대군으로 지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영언(진본)』 편찬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개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⁸⁾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청구영언(육당본)』은 999수의 시조와 16편의 가사를 수록하고 있는 가집으로 19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최남선이 소장하여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에서 활자본으로 인쇄하였으며, 1939년에는 김태준이 교열하여 학예사에서 중간한 바 있다.(김태준 교열, 『청구영언』 조선문고 1-2, 학예사, 1939) 그런데 6.25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인평대군이 작가로 표기된 4수(566, 567, 568, 569)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568은 疊錄이라고 하여 467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한 것을 다시 신고 있다. 한편 『청구영언(진본)』361번에 미상으로, 『병가』526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된 “小園 百花叢에~”로 시작하는 작품이 계면조 이수대엽에 382번 작가 미상으로 수록되어 있다. 결국 『청구영언(육당본)』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이 5수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청구영언(진본)』, 『병와가곡집』, 『청구영언(육당본)』 등의 성격과 형성에 대한 김용찬의 검토는 참고할 만하다. 김용찬,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보고사, 2002), 163~267면 참조.

8) 『청구영언(진본)』의 ‘무씨명(無氏名)’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 비정(批正)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무씨명’에 수록된 작품이 후대의 가집에서는 유명씨의 것으로 수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씨명’에 수록된 작품이 『청구영언』 편찬 당시에 작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작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작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집 작품	『청구영언 (진본)』	『해동가요 (일석본)』	『병와가곡집』	『청구영언 (육당본)』
小園百花叢에	361 (무씨명)	×	526 (인평대군)	382 (미상)
벽람에	390 (무씨명)	×	626 (미상)	467, 568 (인평대군)
主辱臣死 라	398 (무씨명)	×	×	569 (인평대군)
世上사람들이	420 (무씨명)	×	×	567 (인평대군)
主人이 好事하야	×	221 (인평대군)	527 (인평대군)	566 (인평대군)

다섯 편의 가곡 중에서 인평대군의 행적과 연관시킬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小園百花叢에~”로 시작하는 작품과 “主人이 好事하야~”로 시작하는 작품이다. 앞의 작품은 궁궐에서 잔치를 할 때나 낙봉 주변의 원림에서 풍류를 즐기는 과정에서 산생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 뒤의 작품은 여러 차례의 여행 과정에서 안주(安州)의 위로연 자리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금원(禁苑) 또는 낙봉(駱峰) 주변의 화연(華筵)

小園 百花叢에
 늑니는 나뭇들아
 香내를 도히 너겨 가지 마다 안지 마라
 夕陽에
 숨쭈즌 거미는 그물 걸고 엮는다
 『청구영언(진본)』 361 미상, 『병가』 526 인평대군 요, 『청구영언(육당본)』 382, 『고시조대전』 2737.1

이 작품은 『청구영언(진본)』에 작가를 알 수 없는 무씨명(無氏名)에 수

록되어 있는데, 『청구영언(육당본)』에도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된 다른 작품과는 별도로 계면조 이수대엽에 작가 미상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병와가곡집』에는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가곡의 1장에 등장하는 “소원(小園)”, “백화총(百花叢)” 등을 근거로 금원이나 낙봉 주변의 화연(華筵)에서 불리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인평대군의 낙동(駱洞)⁹⁾의 공간인 영파정(映波亭) 등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영파정차익평위홍자범득기구호(登映波亭次益平衛洪子範得箕口號)>¹⁰⁾와 <영파정회음여두원부춘주(映波亭會飲與斗元賦春州)>¹¹⁾과 같은 작품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영파정…>의 셋째 수이다.

봄날 구십일동안 이름 있는 정원에서 취하여 마주하니
적선이 오히려 참됨을 그리지 못할까 두렵네.
일생의 놀이가 마땅히 이와 같으니
나비가 춤을 추고 피꼬리가 노래하니 날마다 새롭네.
醉對名園九十春 謫仙猶恐寫難眞
一生行樂須如此 蝶舞鶯歌日日新

<영파정…>은 갑오년(효종 5, 1654)에 지은 것으로 평성 진운(眞韻) 3수와 평성 우운(尤韻) 3수로 되어 있다. 진운의 시에서는 화연 등 현장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 우운의 시에서는 연행에 대한 회고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양화춘일어제(仰和春日御製)>의 시가 있어서 금원에서 효종과 함께 봄놀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9) 李景奭이 엮은 「神道碑銘」에 “공의 집은 낙봉 아래에 있는데 숲이 동산이 되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또한 매우 소쇄하다. 동산 안에 정사를 지어서 영파(映波)와 청의(淸漪)로 이름을 삼고, 당에는 사의(四宜)로 편액을 하였는데 곧 어필이다.(公之第在駱峰下 園林澗壑 亦甚瀟灑 就園中築精舍 有映波淸漪之號 堂之以四宜額者 乃御筆也)”라는 기록이 있다. 『松溪集』 권8, 『한국문집총간』 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313면

10) 『송계집』 권2, 『한국문집총간』 속35, 198면

11) 『송계집』 권3, 『한국문집총간』 속35, 222면

비밀스런 동산에서 외람되이 임금님을 모시고 놀았는데
 한 번 바라보니 봄빛이 경기 고을에 가득하네.
 나비가 대낮 궁실에 나니 꽃향기가 일렁이고
 피꼬리가 서쪽 숲에서 움직이니 대나무 그림자가 그윽하네.
 앉아서 술잔을 돌리니 빼어난 흥취를 보태고
 봄은 우로에 젖어 그윽한 시름이 흩어지네.
 보잘것없는 신하가 우러러 가어(嘉魚)의 즐거움을 하례하며
 취한 뒤에 <백옥루>를 이어 부르네.

秘苑叨陪翠輦遊 一望春色滿畿州
 蝶飛午院花香動 鶯轉西林竹影幽
 座匝壺觴添逸興 身霑雨露散幽愁
 微臣仰賀嘉魚樂 醉後賡歌白玉樓 右春日偶題

무리를 이룬 궁장에서 각각 노래를 부르는데
 선방(仙榜)에서 은혜를 입고 온갖 꽃을 완상하네.
 비 갠 연못에 봄이 저물려는데
 침향정 위에는 저녁 바람이 많아지네.

宮粧隊隊各徵歌 仙榜承恩賞百花
 雨歇池塘春欲暮 沉香亭上晚風多 右效宮詞¹²⁾

그런데 금원의 화연은 부군 인조의 보살핌과 사형 효종의 아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송계집』 권1에 수록된 시가 효종에게 보내거나 화운한 것인데, <봉화낙선재구호(奉和樂善齋口號)>를 비롯하여 <양화춘궁금원즉사(仰和春宮禁苑卽事)>, <양화춘궁의춘원구호(仰和春宮宜春苑口號)>, <금원양화어제(禁苑仰和御製)> 등의 시제에서 궁금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잔치자리에 참석하거나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시편에서는 화연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상녀(喪女)의 아픔에 대한 사사로운 위로와 연행의 신고에 대한 격려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전쟁과 불모의 위난을 함께 겪은 동기의 우애가 절실하게 배어 있다.

12) 『송계집』 권1, 『한국문집총간』 속35, 189면

인평대군 이요(李潛)와는 어릴 때부터 잘 적에 반드시 이불을 같이 덮었고 하루도 차마 떨어져 지내지 못하였다. 장성하여서도 잠시 서로 떨어져 있게 되면 그때마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금중을 출입하는 것도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수시로 하게 하였다. 매양 조가(朝家)에 사신이 모자랐기 때문에 진사(陳謝)하는 중한 일을 부득이 대군에게 수행하게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주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대군이 떠날 때에는 안타깝게 손을 놓는 한스러움을 지냈고 돌아올 때에는 영접하는 사개(使介)를 멀리 압록강 밖에까지 보내어 법은(法醞)과 친찰(親札)로 위로하였다. 상봉하면 배로 기뻐하여 희비가 겹하여 극진하였는데, 상제(常棣)의 화려한 즐거움도 그 지극한 정을 견주기에는 부족하였다.¹³⁾

그런데 위의 작품은 가곡이 불리어진 정황은 궁원이나 낙봉의 원림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노랫말의 내용은 가곡의 5장에서 보듯 나비에게 거미를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어서, 잔치마당의 흥겨움만을 드러낸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다. 나비와 거미의 대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한 깨우침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행의 신고와 위로연의 회포

主人이 好事호야

遠客을 慰勞홀씨

多情歌管이 비아는이 客愁 | 로다

어줍어 密城¹⁴⁾今日이 太平인가 호노라

『해동가요(일석본)』221, 『병가』527 인평대군 요, 『청구영언(육당본)』566 인평대군, 『고시조대전』 4414.1

이 작품은 『청구영언(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해동가요(일석본)』, 『병와가곡집』, 『청구영언(육당본)』 등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러 가집에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자료에 대한 신

13) 「효종대왕행장[行狀]

14) 密城은 安州의 다른 이름이다.

빙성이 높아 인평대군의 작품으로 비정(批正)할 수 있는데, 『청구영언(진본)』 수록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작품이 나중에 수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인평대군의 행적과 연결시킬 때 여러 차례 연경 사행에 올랐던 인평대군이 평안도 안주에서 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 자리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행(紀行)>에서 안주 지역을 기술한 내용이다.

해질녘 원문에 고각이 울리는데
 아장(牙帳)¹⁵⁾의 서늘한 바람이 비휴를 에워싸네.
 검은 눈썹의 오희는 노랫소리가 막히고
 붉게 단장한 율녀는 춤추는 소매를 드리웠네.
 향기로운 산에 푸른 아지랑이가 뜬 것을 한껏 바라보고
 맑은 강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막 건너네.
 달 밝은 비단 창 가에 서리가 내려 차가운 밤에
 등불 사위는 비단 휘장에 나그네는 꿈을 꾸네.
 落日轅門鳴鼓角 涼風牙帳擁貅貔
 吳姬翠黛歌聲咽 越女紅粧舞袖垂
 香嶽騁望浮翠靄 清江初渡起陰颼
 紗窓月白霜寒夜 羅幌燈殘客夢時 以上密城¹⁶⁾

사행의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각 고을의 수령이나 감사가 가기(歌妓)를 동원하여 위로의 잔치를 베푸는 광경인데, 위의 가곡도 “밀성금일(密城今日)”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안주의 위로연이라고 지목할 수 있다.

사행의 위로연은 이미 관례화¹⁷⁾되어 있어서 유숙하는 지역에서 감사나 수령들이 잔치를 마련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이다. <염

15) 牙帳은 牙旗를 세운 본영에 친 장막이다.

16) 『松溪集』 권2, <紀行 五十韻排律 用進退格>, 『총간』 속35, 207면

17) 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5면

운정춘궁(拈韻呈春宮)>(권1) 첫째 수 미련의 “술동이 앞에서 노래와 음악이 넉넉하다고 싫어하지 말라. 백년의 뜬세상에서 등불 앞의 심한 바람이라네.(莫厭樽前歌管足 百年浮世劇風燈)”, 둘째 수 함련의 “흥을 품은 노래와 음악으로 인하고, 시를 논함은 벗과 동무에 기대네.(遣興因歌管 論詩仗友朋)” 등에서 사행의 길에서 가관(歌管)이 위안이나 흥을 푸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병신년[효종 7, 1656] 여행에서는 상명(喪明)의 아픔을 당하여 성기(聲妓)의 놀이를 막았다. 그러므로 병신년 이전의 사행 때에 부른 노래로 추정할 수 있다.

이윽고 황강 기생 수십명이 무리를 이루어 아울러 누대[승선루]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복중에 있어서 지시하여 물리치고 물러났다. 큰길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 모두 성기의 놀이를 허락하지 않았다.(俄而黃岡妓數十成群 並進樓[勝仙樓]前 以身有重服 揮却以退 沿路諸邑 皆不許聲妓之游)¹⁸⁾

1656년(병신년) 연도기행에 장현(張炫)¹⁹⁾이 종이품의 가의(嘉義)로 수역(首譯)으로 참가한 점²⁰⁾을 주목할 수 있다. 장현은 효종 4년(1653) 사

18) 『松溪集』 권5, 「燕途紀行」, 『총간』 속35, 255면

19) 장현은 동생 燦과 함께 연경을 자주 드나든 역관이었으며, 상사로 사행을 간 인평대군과 밀접한 관계였다. 딸이 궁인으로 있었고, 숙종 때에 희빈이 된 궁인 장씨는 장현의 종질녀였다. 경신년(1680) 인평대군의 아들인 楨과 枅이 출척될 때 장현 집안도 유배의 길에 오르는 등 폄척되었다. 김수장의 『해동가요』 「古今唱歌諸氏」에 장현이 歌者로 등장하고 있으며, 『숙종실록』 등에 희빈의 오빠인 장희재의 첩 淑正이 당시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장현의 다음 시조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것이라 풀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무렵의 여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鴨綠江 히진 후에 에엿분 우리 님이, 燕雲 萬里를 어디라고 가 시는고. 봄풀이 프르고 프르거든 卽時 도라 오소서”(『청구영언(진본)』 221)

20) 『松溪集』 권5, 『한국문집총간』 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252면. 「燕途紀行」에는 9월 11일(병진)에 전둔위(前屯衛)에 목계 되었을 때 장현이 소 한 마리를 바치므로 일행에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9월 18일(계해)에 옥전현(玉田縣)의 동관리(東關里)에 목을 때에 역관 卞承亨이 소 한 마리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어서 의주를 지나 연경으로 가는 여정의 경비 일부를 이들 역관들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의 역관으로 수행하여 삼화(蔘貨)를 많이 가져갔다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대론(臺論)에 대하여 당시 궁인의 아비로서 왕의 비호를 받았고, 인평대군이 상사였기 때문에 인평대군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연행의 기회(羈懷)는 『송계집』에 수록된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평대군의 삶의 중심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연도기행」의 총서에서 경인년(1650)에는 “한 해 동안에 집에 있는 기간이 겨우 한 달(其間在家纔一月矣)”²¹⁾이라고 할 정도로 빈번한 연행은 여러 가지 새로운 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볼모로 잡혀간 두려움과 부군인 인조와 사형인 효종이 나라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관계에 대한 걱정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효종 2년(1651) 11월에 사은사로 가면서 부사인 황호(黃庠, 1604~1656)의 시에 답하는 형식의 <답자유의사수시(答子由擬四愁詩)>(권2)²²⁾에서 ‘봉궐(鳳闕)’, ‘낙봉(駱峰)’, ‘동교(東郊)’, ‘한수(漢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봉궐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고, 낙봉은 자신의 집이 있는 낙동(駱洞)이며, 동교는 별서가 있는 조계동이고, 한수는 한강의 연오(宴娛)를 가리키는 것이다.

3) 세태인정의 변화에 대한 경계

다섯 편에서 인평대군의 구체적인 행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위의 2편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작품은 정치적 상황이나 현실의 이해득실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바람에 휘어진 소나무와 봄바람에 핀 꽃을 들어서 바람과 눈이 몰아치는 계절이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인심이나 세태의 변화를 예고하는 발화로 이해할 수 있다.

21) 『松溪集』권5, 「燕途紀行」, 『총간』 속35, 250면

22) 『송계집』 권2, 『한국문집총간』 속35, 210~211면

벼람에 휘엿노라
구븐 술 웃지 마라
春風에 피은 곳지 미양에 고와시라
風飄飄

雪紛紛
홀 제 네야 날을 부르리라
『청구영언(진본)』390 미상, 『병가』626 미상, 『청육』467, 568 인평대군, 『고시조대전』 1791.1²³⁾, 『靑洪』, 『靑詠』, 『大東』에는 최영으로 표기

이 작품은 『청구영언(진본)』에 무씨명으로 수록되어 있고, 『병와가곡집』에도 작자 미상으로 수록되었는데, 『청구영언(육당본)』에는 467번과 568번에 거듭 수록되어 있으면서 작가가 인평대군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⁴⁾

主辱臣死라 하니
내 주검즉 헝다마는
큰 칼 녀피 츄고 이제도록 사랏기는
聖主의

萬德 中興을 다시 보려 헝노라
『청구영언(진본)』398 미상, 『시가(박씨본)』348, 『청구영언(가람본)』449
朴明賢
『청육』569 인평대군, 『고시조대전』 4410.1

이 작품은 작가가 여러 사람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작가에 대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주의 중흥을 바라면서 참고 살아온 무인(武人)의 기개를 느끼게 하고 있다.

世上 사름들이
입들만 성헝여서

23) 이 작품은 『청구영언(육당본)』에 467번과 568번에 수록되어 있고 568번은 疊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고시조대전』에서는 작가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청구영언(육당본)』의 567번(『고시조대전』의 2650.1), 569번(『고시조대전』의 4410.1)의 작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24) 한편 『靑洪』, 『靑詠』, 『大東』 등에는 崔瑩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제 허물 전혀 낮고 늬의 흥 보느괴야
늬의 흥
보거라 말고 제 허물을 고치고자
『청구영언(진본)』420 미상, 『청구영언(육당본)』567 인평대군, 『율보』
0097 인평대군, 『원중』817 인평대군, 『고시조대전』 2650.1

위의 작품은 세상 사람들의 세태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자신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흥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5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2수가 1877년에 필사된 『동국명현가사집록』²⁵⁾이라는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작가에 대한 비정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참조 자료로 제시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정세태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늬의 허물을 귀로 드러도
입으로 論短치 말고
눈으로 보와도 못 본체 흐면
옛날
桀紂村에 가신들 害하 리 뉘 잇슬고
『동명』169 인평대군

말마당 스름을 害하고
구학 갓탄 탐욕을 흥중에 갈마시면
하늘과
사람이 흥가지로 죽기느이라
『동명』170 인평대군

25) 권순희, 「동국명현가사집록」, 『고시조문헌해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266~271면.

3. 조계별업의 종류와 흥취

인평대군에 대한 인조의 사랑은 매우 특별하여 인조 19년(1641)에 저택²⁶⁾을 마련해 주었는데, 당시에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에는 한강 주변 두모포의 수석을 채취하여 집을 짓는 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²⁷⁾이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평대군은 25세이던 인조 24년(1646) 늦은 봄에 우연히 동소문 바깥 삼각산 아래의 조계동(漕溪洞)에 노닐다가 승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별업을 열었다. 그곳에는 십일급(十一級)의 폭포가 있어서 폭포 주변에 보허각(步虛閣)을 세우고 폭포에는 구천은폭(九天銀瀑)²⁸⁾이라 각자²⁹⁾까지 하였다.

삼각은폭(三角銀瀑)을 여산(廬山)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을 물리도록 들었으나, 그 진승을 찾지 못하다가 병술년(1646년, 인조 24) 늦봄에 우연히 조계에 노닐면서 선구를 찾아보게 되었다. 한 줄기 폭포가 이름과 실체가 어긋나지 않았다. 이에 산을 파고 골짜기를 막아 정자와 돈대를 세웠는데, 매우 맑고 빼어났다. 때때로 간혹 거문고와 술병을 들고 바람과 달을 읊으며 옥 물결에 목욕하고 구슬 골짜기를 어슬렁거렸다. 문설주를 보허(步虛)라고 하고, 당을 영휴(永休)라고 하였다. 아, 천백 년이 지나 단향목을 그리고 용마루를 새겨서 제멋대로 높고 높이지 않아도, 끝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석교(石橋)와 은폭(銀瀑)이라?³⁰⁾

26) 『인조실록』 권42, 19년(1641) 2월 4일(기유)

27) 『인조실록』 권50, 27년(1649) 3월 23일(임오)

28) 九天銀瀑은 삼각산 백운봉에서 내려와 동문을 나서서 漕溪洞에 있는 폭포인데, 인평대군이 이곳에 別墅를 마련한 뒤에 선비들을 중심으로 삼각산 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지소가 되었고, 『진청』 579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설시조의 연행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재남, 「백운봉 등립시조의 변이 양상과 현실성 검토」, 『진단학보』 111호(진단학회, 2011.4), 221면, 232~233면 참조

29) 九天銀瀑의 각자는 李伸의 글씨로 되어 있다. 이신은 인평대군의 「燕途紀行」에서 효종 7년(1656) 進奏使로 갈 때 弘濟院 전별에 堂下前縣監으로 掌禮房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松溪集』 권5, 「燕途紀行」, 『한국문집총간』 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252면. 그런데 『한국서화인명사서』(3판, 예술춘추사, 1978)에서는 본관이 驪州이며 현감 福長의 아들로 武科에 올라 현감을 지냈으며, 필명이 있어서 興化門, 太僕寺, 霜臺衙門의 편액을 썼다고 하였다.

구천은폭이라고 알려진 삼각은폭이 있는 곳에 보허각(步虛閣)과 영휴당(永休堂)을 마련하고 술자리에서 바람과 달을 읊조리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보허각 주석응호(步虛閣 *槽溪水閣 酒席應呼)>와 같은 작품에서 이곳 조계별업의 풍류와 흥취를 짐작할 수 있다.

오월 동쪽 교외에 연일 내리던 비가 개는데
 처마에 기대어 내려다보니 저녁 산이 푸르네.
 꽃이 피는 굽은 섬돌에는 고운 빛이요
 물이 내리는 맑은 못에는 출렁이는 형상이네.
 가는 달은 어슴푸레 주렴 밖에서 일렁이고
 맑은 통소는 영롱하게 베개머리에 들리네.
 화려한 자리에 가는 산가지는 왕성이 멀지만
 오히려 돌아가는 말이 취하여 깨지 않을까 두렵네.

五月東郊積雨晴 憑軒俯瞰暮山青
 花開曲砌娟娟色 水溝澄潭灩灩形
 細月依稀簾外動 清簫嘹唳枕邊聽
 華筵細筭王城遠 猶恐歸鞍醉未醒³¹⁾

인평대군은 이 지역을 동교(東郊)라고 지칭하였고, 미련에서 그들의 모임을 화연이라고 하였다. 연경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지은 <답자유의사수시(答子由擬四愁詩)>(권2)의 셋째 수에서 동교를 떠올리면서, “얽은 저녁에 돌아가는 구름은 나무 끝을 감싸고, 만 길 날리는 폭포는 꿈결에서 보리.(薄暮歸雲擁樹梢 萬丈飛瀑夢中看)”³²⁾라고 읊었다.

그런데 이곳에 별업을 마련한 뒤에 <첩용전운 영조계산장 잉정춘궁(疊用前韻 咏槽溪山庄 仍呈春宮)>과 같은 시를 써서 봉림대군에게 승경을 알

30) 『松溪集』 권4, 「雜著」, 『한국문집총간』 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248면, 飽聞三角銀瀑, 不讓廬山, 未探其眞. 歲丙戌暮春, 偶遊槽溪, 尋得仙區, 一道飛流, 名實不爽. 於是塹山埋谷, 創構亭臺, 儘清絕. 時或持琴壺吟風月, 沐浴瓊波, 逍遙玉洞. 閣曰步虛, 堂曰永休. 於乎, 千百年過, 畫棟雕甍, 縱未嵬峩, 終不泯者, 其惟石橋銀瀑乎?

31) 『松溪集』 권2, 『총간』 속35, 214면.

32) 『松溪集』 권2, 『총간』 속35, 211면.

리기도 하였다. 수련에서 “이백년 동안 사람들이 일컬은 곳인데, 이제야 명성이 충분히 더하리.(二百年間人所稱 如今聲價十分增)”³³⁾라고 하여 서로 공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감회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행에서 데리고 온 중국인 맹영광(孟永光)과 조계별업에서 노닐기도 하였는데, 이 일 때문에 한때 대론의 비판이 되기도 하였다. <대맹영광 왕유조계(帶孟永光 往遊槽溪 *孟卽中國名畫 號貞明 浙江人 勤邀東來 是秋還送)>가 그것이다.

대가마로 먼 데서 온 손님을 모시는데
 동교의 별서에 새로 햇빛이 나타나네.
 난간에 기대니 푸른 산이 가깝고
 발을 걸으니 떨어지는 폭포가 환하네.
 풍류는 거듭 빼어난 모임이고
 그림은 더욱 높은 이름이네.
 조금 취하여 흥취를 타고 돌아가노라니
 비긴 해가 도성에 가득하네.
 籃輿携遠客 郊墅屬新晴
 倚檻青山近 捲簾飛瀑明
 風流仍勝會 繪素又高名
 小醉乘歸興 斜陽滿禁城³⁴⁾

교서(郊墅)는 동교(東郊)의 별서(別墅)의 준말로 조계별업의 공간을 지칭하는 것인데, 함련에서는 청산(靑山)과 비폭(飛瀑)이 시야에 들어오는 경관이라고 하였다. 경련에서 제시한 이곳의 풍류와 손님인 맹영광의 그림솜씨가 더욱 품격을 높인다고 보았다. 미련에서의 흥취는 조계별업에서 낙봉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인평대군의 일상의 삶과 이어지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계별업은 인평대군이 살았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풍류의 공

33) 『松溪集』 권1, 『총간』 속35, 188면.

34) 『松溪集』 권2, 『총간』 속35, 198면.

간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삼각산을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소가 되었다. 1674년 허목(許穆, 1595~1682)의 「갑인기행」, 1707년 이익(李瀾, 1681~1763)의 「유삼각산기」, 1712년의 「유북한기」 등에서도 조계 별업과 구천은폭이 중요한 지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설시조에서는 구천은폭이 백운봉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길에 들르는 중요한 지소로 제시되어 있어서, 사설시조의 서정주체와 담당층, 연행의 확대 등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⁵⁾

洛陽城裏方春和時에 草木群生이 皆樂이라
冠者 五六人과 童子六七 거느리고 文殊中興으로 白雲峰登臨하니 天文이
咫尺이라 拱北三角은 鎖國無疆이오 丈夫의 胸襟에 雲夢을 습것는 듯 九天銀
瀑에 塵纓을 拭은後에 踏歌行休하여 太學으로 도라오니
曾點의 詠歸高風 밧쳐본 듯 하여라.(『청구영언(진본)』570)

4.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한 반응

효종과 인평대군의 사부를 맡기도 했던 윤선도는 효종 3년(임진, 1652) 경기도 고산(孤山)에 있으면서 <몽천요> 3장을 지어 인평대군에게 보내고, 효종 7년(병신, 1656)에는 이를 한역하였다.³⁶⁾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윤선도의 내면적 토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평대군의 답신이 있어서 주목할 수 있다.

상해런가 꿈이런가

35) 최재남, 「백운봉 등림시조의 변이 양상과 현실성 검토」, 『진단학보』 111호(진단학회, 2011.4), 223면. 서정주체와 담당층, 연행의 확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36) <몽천요>에 대하여 이재수, 『윤고산연구』(학우사, 1955), 111~117면 참조.

白玉京의 올라가니
 玉皇은 반기시나 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五湖烟月이 내 分일시 올탸다

뜻짐의 꿈을 꾸어
 十二樓에 드러가니
 玉皇은 우스시되 群仙이 꾸짖느다
 어즈버
 百萬億蒼生을 어니결의 무르리

하늘히 이저신제
 므슴 술로 기워넨고
 白玉樓 重修홀제 엇던바치 일워넨고
 玉皇의
 슬와보자 허더니 다뭇허야 오나다³⁷⁾

위의 작품에서 백옥경, 십이루, 백옥루 등은 궁궐이나 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옥황은 임금으로 추정되며, 군선(群仙)은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몽천요>는 66세이던 임진년(효종 3년, 1652) 5월에 고산에 있으면서 지은 것이고, 70세이던 병신년(효종 7년, 1656)에 금쇄동에 있으면서 한역하였다.

그 사이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윤선도는 30세인 광해 8년(1616)에 당시의 권병(權柄)이던 이이첨(李爾瞻)을 참형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³⁸⁾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절의가 있는

37) 『孤山遺稿』 권지육하, 『이조명현집』 3(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1), 810~811면. 한역은 다음과 같다. 夢耶眞耶, 一上玉京闔闔開. 玉皇靑眼羣仙猜. 已矣乎, 五湖烟月閑徘徊. 野人化蝴蝶, 翩翩飛入十二樓. 玉皇含笑羣仙尤. 吁嗟乎, 萬億蒼生問何由. 九重天有缺時, 補綴用何謀. 白玉樓重修日, 何工成就乎. 欲問玉皇無暇問, 歸來空一吁.

38) 『光海君日記』 권110, 8년 12월 21일(정사), 『국역 광해군일기』 15, 305~318면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42세이던 인조 6년(1628)부터 46세이던 인조 10년(1634)까지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를 맡으면서 궁금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병자호란(1636)에 해남에 있으면서 바로 임금에게 달려가지 않았고 인조가 승하[1649]하였을 때 바로 분곡(奔哭)하지 않았다고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66세이던 효종 3년(1652) 정월에 사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4품의 성균관 사예로 임명하고, 이어서 3월에 특명으로 정3품 당상관인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하자 물의가 일어난 것이다. 윤선도 개인으로서는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 것이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효종의 사부라는 인연으로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4월에 이만웅(정언), 권우(집의), 오정위(헌납), 정익(정언), 민정중(수찬), 김시진(수찬), 권령(장령), 윤강(대사헌), 심로(집의) 등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³⁹⁾

4월에 면직되고 난 뒤에 <몽천요>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 5월 10일에 <몽천요>를 짓게 된 사정을 말한 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인평대군에게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면직되고 서울에서 30리 쯤에 있는 고산⁴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인평대군이 <몽천요>에 대한 답서를 보냈다. <몽천요>의 내면에 대한 인평대군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동호(東湖) 근처의 고산에 머무르며 지은 <초도고산우음(初到孤山偶吟)>의 수련에서 “무슨 일로 당대의 사람들은 괴롭게 엮고 모으며, 어찌 하여 성주께서는 넘치게 사랑하고 자애로우신가?(底事時人苦構捏 如何聖主過恩滋)”⁴¹⁾라고 한 데서도 윤선도가 <몽천요>를 짓게 된 사정을 살필 수 있다.

8월에 예조참의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11월에 원두표(元斗杓)를 논핵하

39) 이상은 『효종실록』 권8, 3월~4월 기사 참조.

40) 『孤山遺稿』 「年譜」에서는 이 무렵(4월과 7월)에 효종이 掖隸를 보내어 恩問을 배 풀었다고 하였다.

41) 『孤山遺稿』 권1, 詩

였다가 삭출되어 해남으로 돌아갔다. 이 무렵에 인평대군이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인평대군과 조계별업에서 노닐고자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차운경정인평대군안하(次韻敬呈麟坪大君案下)>의 미련에서 “조계별업을 일찍이 물리도록 들었는데, 아득한 가운데 좇아 놀지 못함이 안타깝네.(漕溪別業聞曾飽 恨未從遊縹緲中)”라고 한 부분이 이를 반증한다.

<몽천요>에 대하여 윤선도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시경』 「위풍」의 <원유도(園有桃)>에서, “동산에 복숭아가 있는데, 그 열매는 안주거리라네. 마음이 근심스러우면 나는 노래하고 읊조리네. 대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일처리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네. 저들이 옳거늘 그대는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마음이 근심스러움을 그 누가 알라? 그 누가 알라? 대개 또한 생각하지 말아야지.”고 하였고, 두보의 시에서는, “강해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시원하게 세월을 보내네. 살아서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났는데 문득 길이 작별함을 견디지 못하겠네. 동학의 늙은이에게 비웃음을 받으니, 호탕한 노래가 격렬하게 가득하네.”라고 읊었다. 대저 내가 탄식하고 읊조리는 나머지 소리에서 나와서 길게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동학이 웃으며 기롱하며, 그대의 입에 어찌 그러냐고 꾸짖음이 없으랴? 그러나 스스로 그만둘 수 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이른바 ‘내가 고인을 생각하니 실로 내 마음을 빼앗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임진년 5월 초열흘에 부용동의 낚시하는 늙은이가 병으로 고산에 머무르며 쓰다.(魏詩曰 園有桃 其實之殷 心之憂矣 我歌且謠 不知我者 謂我士也驕 彼人是哉 子曰何其 心之憂矣 其誰知之 其誰知之 蓋亦勿思 杜子美詩曰 非無江海志 瀟灑送日月 生逢堯舜君 不忍便永訣 取笑同學翁 浩歌彌激烈 夫我咨嗟咏歎之餘 不覺其發於聲而長言之 豈無同學啞啞之譏 子口何其之諠也 然而自不能已者 是誠所謂我思古人 實獲我心者也 壬辰五月初十日 芙蓉釣叟病滯孤山識)⁴²⁾

『시경』 「위풍」의 <원유도(園有桃)>를 예로 들어 충신의사지심(忠臣義士之心)을 드러내고 있으며, 두보(杜甫)가 천보(天寶) 14년(+755)에 지은 5언고시 <자경부봉선현영회오백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전당시』 권

42) 『孤山遺稿』 卷之六下.

216)의 11구에서 16구⁴³⁾까지를 인용하여 자신의 뜻을 가탁하고 있다.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하여 인평대군은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내고 있다.

앞드려 거듭 영광스러운 글을 받고, 거듭 몸과 운신이 아직 편안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근심과 걱정이 이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몽천요> 3편을 되풀이하여 자세히 읽으니,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상쾌하게 하며, 그 중의 심오한 말뜻은 더욱 영탄하여 마지않음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산장에서 회포를 서술함은 이미 허락을 얻은 것입니다. 물고기와 과일을 간략하게 배설하여 천리를 받들어 헤어지는 것에 견주니,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은 법이라 조금의 참마음을 이룰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슬퍼집니다. 어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멀리 삼가는 바를 헤아려서 진실로 한결같은 품성을 배가시키고, 그리하여 위로할 만한 것은 깃발을 잠시 머무는 것으로 돌리시면 총명함을 받들 날이 있으리니, 몰래 기쁜 일이 이르는 것을 견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뿐 더 이상 펴지 못합니다.⁴⁴⁾

인평대군이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사부인 윤선도의 입장을 수긍하는 입장에서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천요>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상쾌하게 하며, 그 중의 심오한 말뜻”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서, 아울러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며 기다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해에 인평대군은 <주과윤참의고산강사 임별 봉화소증운(舟過尹參議孤山江榭 臨別 奉和所贈韻)>에서 윤선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한 위안의 말을 전하고 있다.

43) 『全唐詩』와 『杜詩詳註』 권4에는 “取笑同學翁 浩歌彌激烈 非無江海志 瀟灑送日月 生逢堯舜君 不忍便永訣”의 순으로 되어 있다.

44) 『松溪集』 권4, 「書」, <答尹承旨善道書> 『한국문집총간』 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240면, 伏承辱復 仍尋體履尙未寧和 不任憂慮之至 夢天謠三篇 圭復翫讀 令人神清氣爽 而其中深辭奧意 尤不覺咏歎之不已 山庄敘懷 已蒙諾矣 擬略設魚果 奉別千里 好事多魔 未遂寸忱 心之感矣 何可勝言 遙慮所慎 實倍恒品 然而所可慰者 歸旆暫停 奉晤有日 竊無任欣喜之至 只此不宣

광릉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옹을 찾노라니
 지는 햇살 속에 조각배가 날아가네.
 붓을 내려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술잔을 마주하면 온화한 기운이 두 눈동자에 비치네.
 외로운 산의 소나무와 국화가 숲과 뽕나무의 취향이요
 저녁 여울의 고기 잡는 배는 칠리의 바람이네.
 주기를 이제 또 얻음을 스스로 기뻐하거니와
 비단 주머니의 무거운 구슬은 어느 아이에게 주랴?
 廣陵歸路訪詞翁 片帆飛過落照中
 下筆文章喧萬口 對樽和氣映雙瞳
 孤山松菊柴桑趣 晚瀨漁舟七里風
 自喜珠璣今又得 錦囊珍重付奚童

한편 윤선도는 인평대군이 죽자 <인평대군만(麟坪大君挽)>에서 인평대군의 짧은 삶을 비통해하면서, 함련에서 “꽃과 꽃받침이 서로 빛남은 여전히 보는 듯한데, 동평이 선을 행함은 이미 부질없이 되었네.(花萼相輝猶及見 東平爲善已成空)”⁴⁵⁾라고 하여, 광무제의 여덟째 아들인 창(蒼, 봉호 東平)처럼 선을 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5. 소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평대군은 인조의 아들, 효종의 동생으로서 권부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금원에서 잔치 자리에 참석하였고, 여러 차례 정사로 연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금원 등의 화연이나 연행의 위로 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가곡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동소문 밖 조계동에 별업을 마련하여 풍류와 흥취를 누리기도 하였다. 한편 사부인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히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45) 『孤山遺稿』 卷之一, 『이조명현집』 3, 592면.

인평대군의 가곡 향유는 왕족의 가곡 향유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고, 이와 아울러 그 주변 인물들과의 연결 고리에 대한 검토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낭원군 이간(李侃, 1640~1699)⁴⁶⁾의 『영언』으로 이어지는 가곡 향유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조계동에 마련한 별서는 구천은폭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풍류와 흥취를 누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이후 이 지역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한 삼각산 유지에서 중요한 지소로 지목되고 있고, 특히 구천은폭은 이른바 ‘백운봉 등림 시조’로 명명할 수 있는 사설시조의 연행과 향유층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사부인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한 반응은 윤선도의 정치적 입장은 물론 당대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인평대군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46) 李侃은 宣祖의 손자로 仁興君 焜의 둘째 아들이다.

참고문헌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

『순조실록』

尹善道, 『孤山遺稿』, 『이조명현집』 3(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1)

尹善道, 『孤山遺稿』, 『한국문집총간』 91(민족문화추진회, 1992)

李 潛, 『松溪集』, 『한국문집총간』속35(민족문화추진회, 2007)

李 潛, 「연도기행」, 『국역 연행록선집』Ⅲ(민족문화추진회, 1979), 6~139면.

『詩經』(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4)

『全唐詩』(中華書局, 1992)

『杜詩詳註』(상해고적출판사, 1992)

『한국서화인명사서』(3판, 예술춘추사, 1978)

『청구영언(진본)』(조선진서간행회, 1948)

김용찬,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보고사, 2002), 163~267면.

김태준 교열, 『청구영언』 조선문고 1-2(학예사, 1939).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신경숙 외, 『고시조문헌해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윤세순, 「유만주의 윤선도 시조 한역의 배경과 양상」, 『한국시가연구』 31집(한국시가학회, 2011), 45~72면.

이재수, 『윤고산연구』(학우사, 1955), 263면.

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한국

고전연구학회, 2011), 31~72면.

최재남, 「백운봉 등림시조의 변이 양상과 현실성 검토」, 『진단학보』
111호(진단학회, 2011.4), 215~241면.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The Enjoyment of Kagok and an Response to <Mongcheonyo> by Prince Inpyung(麟坪大君)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enjoyment of Kagok and an response to <Mongcheonyo(夢天謠)> by Prince Inpyung(麟坪大君).

Prince Inpyung is a third son of King Injo(仁祖) and a younger brother of King Hyojong(孝宗). He has experienced taken hostage to Shimyang(瀋陽) and has been dispatched an envoy to Yongyeong(燕京) over ten times.

He has enjoyed the feast of palace garden by King Injo(仁祖) and King Hyojong(孝宗), and the feast of Youngpajeong(暎波亭) of his Nakbong residence. And he made a cottage named Chogyebyulup(漕溪別業) in Chogye valley.

We are interested in his achievement of Siga following as three category.

First, he handed down five poems of Sijo in several Kajip. In two poems, we are able to emphasize the experience the feast of palace garden and the solace feast to the envoy to Yongyeong. And other poems, we are able to read a caution to the manners of the world.

Second, he enjoyed the refinement and the grace in a cottage named Chogyebyulup. His refinement and grace was spread learned men of those days. In long Sijo, we are able to point out a place Kucheoneunpok(九天銀瀑) located in a cottage named Chogyebyulup(漕

溪別業).

And the third, he responded to the <Mongcheonyo(夢天謠)> written by Yoon Sundo(尹善道), a teacher of his boyhood. He gave his assent to <Mongcheonyo(夢天謠)>, but he was afraid of the political landscape.

His achievement of Siga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njoyment of the royale families and those around.

key words : Prince Inpyung, Kagok, Nakbong, envoy to Yongyeong, cottage named Chogyebyulup, Kucheoneunpok, <Mongcheonyo(夢天謠)>, Yoon Sundo